

2026년 7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KNN

1. 회의개최

연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07. 29 (수)	KNN 대회의실	11/14	8	0	19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강의구, 강문기, 강정규, 김덕열, 김정환,
김홍준, 복성경, 송수진, 송연익, 이철희, 이덕환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호진(경영본부장), 전성호(제작편성본부장), 추종탁(뉴미디어제작본부장), 김성기(보도국장), 안의섭(기술국장), 국주호(영상제작국장), 허민경(제작국장), 이근호(편성라디오국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채널 구성·운영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0	6	1	0	1	8	0	8

나. 사업자 반영

구 분	수 용	의견 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8	0	0	8

*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수용비율 기준으로 평가(활용비율 0%는 0점)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시청자불만)	부산 출산 지원 정책인 마마쿨의 실제 이용 실태를 잘 보여준 보도에서 임산부 동행 취재를 통해 배차 실패와 긴 대기 시간을 생생하게 보여줘 현실성을 높였음. 외곽 지역 배차 문제, 운영 시스템, 정산 방식 등 한계도 이해하기 쉬웠음. 교통비 바우처 같은 대안도 의미있을 거라는 내용이나 출산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후속보도가 필요해 보임.	조치내용없음	‘26.7월
보도 (시청자불만)	500명 규모 조선기자재 업체의 경남 고성 이전이 주민 민원으로 무산될 위기라는 점이 안타까웠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졌고, 소극적인 지자체의 행정도 아쉬웠음.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행정 문제를 꾸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후속 보도가 필요해 보임.	조치내용없음	‘26.7월
보도 (시청자불만)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시의성 있는 단독 보도가 있었음. 유튜브 투자자문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와 무리한 투자 권유를 짚어 피해 예방의 중요성을 잘 알려줬음. 특히 리딩방 등 불법 투자 자문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 현실을 생각하면 의미 있는 보도였음. 단순히 사건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 피해의 구조와 재발 방지 대책까지 짚어준 점이 좋았음. 사건 보도로만 끝내지 않고 다른 부분을 파고들어 다른 내용으로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조치내용없음	‘26.7월
보도 (시청자불만)	해양경찰청 본청 이전 문제는 한두 번 보도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함.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될 때까지 지속적인 후속 보도와 심층 취재가 필요함.	조치내용없음	‘26.7월

교양 (시청자불만)	행복한 책읽기 프로그램에서 ‘행복의 기원’편이 가장 인상 깊었음. 책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흥미롭게 시청했음. 행복을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 유익했음. 추천 도서뿐 아니라 베스트셀러 작가나 저자를 직접 초청해 집필 배경과 생각을 들려주는 시간도 마련된다면 프로그램의 깊이와 공신력이 더욱 높아질 것 같음.	조치내용없음	‘26.7월
기타 (시청자불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사라질 수 있는 근대 해양 문화유산과 외양포 일본군 포진지 등 역사적 유산을 기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미 존재하는 유산을 시로 복원하는 것보다 현재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음. 제작 역량과 기록성을 활용해 사라지기 전에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한다면 지역의 소중한 역사 자료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음.	조치내용없음	‘26.7월
보도 (시청자불만)	최근 날씨 보도에서 부산/경남 폭염 지도를 봤을 때, 시각적 전달력이 아쉬웠음. 지도에 부산/경남을 빨갈게 표시하는 것뿐 아니라 부산, 양산, 창원, 진해 등 주요 지명을 함께 표시했다면 시청자가 지역 상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음. 단순히 덥다는 표현을 넘어 CG와 지명 표시를 활용해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전달한다면 날씨 보도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함.	조치내용없음	‘26.7월
보도 (시청자불만)	대심도 땅꺼짐 관련 보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후속 보도를 이어간 점 긍정적으로 평가함. 다만 기사가 개별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전체적인 흐름과 연관성이 부족한 점은 아쉬웠음. 이전 보도 내용과 현재 상황을 연결해 보여준다면 시청자가 문제의 진행 과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음. 관련 기사 링크나 이전 주요 보도를 함께 안내한다면 독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찾아볼 수도 있고, 보도의 영향력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함.	조치내용없음	‘26.7월
총 건수		8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26. 7 ~ 2026. 7)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백재호	2003.08.14	대학생	임기만료	1달
정원중	2003.10.26	대학생	임기만료	1달
김나경	2006.11.17	대학생	임기만료	1달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진 창구 운영 (사전 검토를 위한 위원 게시판, 단체 채팅방 운영 등)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 전문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구분	성명	전 · 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성별/생년 (총선임기간)
위원장	강의구	(현)부산영사단장	(사)한국해양산업협회	경제단체	남/1946 (20.03.01.~27.03.26)
부위원장	이준홍	세무회계 해인 대표 세무사	부산지방세무사회	경제단체	남/1965 (22.01.01.~27.03.26)
위원	강문기	한국기술사회 부회장	한국기술사회	과학기술 단체	남/1965 (25.03.26~27.03.26)
위원	강정규	동아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동의대학교	학부모단체	남/1967 (23.01.01.~27.03.26)
위원	김덕열	(사)부산청년정책연구원 이사장	(사)부산방송영상포럼	청소년 단체	남/1980 (25.03.26~27.03.26)
위원	김정환	부산 YWCA 사무총장	KNN 노동조합	노동단체	여/1964 (25.03.26~27.03.26)
위원	김홍준	(주)무지개약품 대표이사	부산울산경남 의약품유통협회	경제단체	남/1987 (25.03.26~27.03.26)
위원	복성경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KNN 노동조합	노동단체	여/1971 (25.03.26~27.03.26)
위원	송수진	부산디지털대학교 교수	부산디지털대학교	학부모단체	여/1990 (25.03.26~27.03.26)
위원	송연익	(주)에스엠홀딩스 대표이사	부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남/1969 (23.01.01.~27.03.26)
위원	이덕환	법무법인 나침반 대표 변호사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남/1974 (25.03.26~27.03.26)
위원	이철희	단디병원 병원장	양산시의사회	과학기술 단체	남/1978 (22.01.01.~27.03.26)
위원	임수정	사단법인 자연의 권리찾기 조직위원	(사)자연의 권리찾기	소비자보호단체	여/1973 (23.01.01.~27.03.26)
변 동 사 항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시청자 불만)	부산 출산 지원 정책인 마마콜의 실제 이용 실태를 잘 보여준 보도에서 임신부 동행 취재를 통해 배차 실패와 긴 대기 시간을 생생하게 보여줘 현실성을 높였음. 외곽 지역 배차 문제, 운영 시스템, 정산 방식 등 한계도 이해하기 쉬웠음. 교통비 바우처 같은 대안도 의미있을 거라는 내용이나 출산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후속보도가 필요해 보임.	제안해 주신 사항들을 중요한 개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각 사안을 하나씩 검토하고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 (시청자 불만)	500명 규모 조선기자재 업체의 경남 고성 이전이 주민 민원으로 무산될 위기라는 점이 안타까웠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졌고, 소극적인 지자체의 행정도 아쉬웠음.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행정 문제를 꾸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후속 보도가 필요해 보임.	제안해 주신 사항들을 중요한 개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각 사안을 하나씩 검토하고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 (시청자 불만)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시의성 있는 단독 보도가 있었음. 유튜브 투자 자문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와 무리한 투자 권유를 짚어 피해 예방의 중요성을 잘 알려줬음. 특히 리딩방 등 불법 투자 자문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 현실을 생각하면 의미 있는 보도였음. 단순히 사건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 피해의 구조와 재발 방지 대책까지 짚어준 점이 좋았음. 사건 보도로만 끝내지 않고 다른 부분을 파고들어 다른 내용으로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제안해 주신 사항들을 중요한 개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각 사안을 하나씩 검토하고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시청자 불만)	해양경찰청 본청 이전 문제는 한두 번 보도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함.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될 때까지 지속적인 후속 보도와 심층 취재가 필요함.	제안해 주신 사항들을 중요한 개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각 사안을 하나씩 검토하고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교양 (시청자 불만)	행복한 책읽기 프로그램에서 ‘행복의 기원’편이 가장 인상 깊었음. 책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흥미롭게 시청했음. 행복을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 유익했음. 추천 도서뿐 아니라 베스트셀러 작가나 저자를 직접 초청해 집필 배경과 생각을 들려주는 시간도 마련된다면 프로그램의 깊이와 공신력이 더욱 높아질 것 같음.	행복한 책읽기 프로그램은 현재 주로 명사와 전문가들의 추천 도서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시청자 의견을 반영하여 앞으로는 베스트셀러 작가 및 도서 저자를 직접 초청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음. 작가의 집필 배경과 책에 담긴 메시지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깊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기타 (시청자 불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사라질 수 있는 근대 해양 문화유산과 외양포 일본군 포진지 등 역사적 유산을 기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미 존재하는 유산을 시로 복원하는 것보다 현재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음. 제작 역량과 기록성을 활용해 사라지기 전에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한다면 지역의 소중한 역사 자료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음.	가덕도 관련 역사, 문화유산 보존과 기록의 필요성을 반영해 관련 아이템을 준비 중이며, 방송을 목표로 제작을 추진할 예정임. 가덕도 내 근대 해양 문화유산과 일제강점기 유적 등 사라질 수 있는 역사적 자원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제작진과 공유하고, 체계적인 아카이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 전달할 수 있도록 관련 취재와 기록 작업을 충실히 진행하겠음.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시청자 불만)	최근 날씨 보도에서 부산/경남 폭염 지도를 봤을 때, 시각적 전달력이 아쉬웠음. 지도에 부산/경남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것뿐 아니라 부산, 양산, 창원, 진해 등 주요 지명을 함께 표시했다면 시청자가 지역 상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음. 단순히 덥다는 표현을 넘어 CG와 지명 표시를 활용해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전달한다면 날씨 보도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함.	날씨 보도 관련 의견을 반영해 해당 보도 화면 구성과 CG 표현 방식을 다시 점검하겠음. 부산/경남 지역의 폭염 상황을 시청자가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 내 주요 지명 표시와 시각적 정보 전달 방식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앞으로도 날씨 정보 전달 과정에서 지역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CG 구성과 표현 방식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음.	○		
보도 (시청자 불만)	대심도 땅꺼짐 관련 보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후속 보도를 이어간 점 긍정적으로 평가함. 다만 기사가 개별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전체적인 흐름과 연관성이 부족한 점은 아쉬웠음. 이전 보도 내용과 현재 상황을 연결해 보여준다면 시청자가 문제의 진행 과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음. 관련 기사 링크나 이전 주요 보도를 함께 안내한다면 독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찾아볼 수도 있고, 보도의 영향력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함.	제안해 주신 사항들을 중요한 개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각 사안을 하나씩 검토하고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